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께 서
새로 건설된 룡악산비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당창건기념일까지 공장건설을 끝낼데 대한 전투명령을 관철하느라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룡악산비누공장건설에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제일기수, 돌격대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순간의 침체와 답보도 모르는 사회주의조선의 전진의 숨결, 필승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치는데 적극 이바지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부문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인민들이 그 덕을 단단히 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룡악산비누공장은 우리 당이 깊이 관심하는 공장, 인민생활향상과 직결된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룡악산비누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인민사랑의 뜨거운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생산과 제품질제고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제 18 차 공 산 당 , 로 동 당 들 의 국 제 회 의 에 축 전 을 보 내 였 다

하 노 이

제18차 공산당, 로동당들의 국제회의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제18차 공산당, 로동당들의 국제회의를 열렬히 축하하면서 회의에 참가한 여러 나라 당대표단들과 대표들에게 친선적이며 동지적인 인사를 보냈다.

세기와 년대를 이어 진행되여온 공산당, 로동당들의 국제회의는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운동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나누고 호상 지지와 련대성을 강화하는데서 자기의 사명과 목적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우리는 이번 회의가 자주력량과 지배주의세력사이의 대결이 더욱 심화되고있는데 대처하여 공산당, 로동당들이 올바른 전략전술을 가지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회의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주체105(2016)년 10월 28일 평 양

조국의 북변땅에 뜨겁게 넘치는 친어버이사랑

위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에 인민사랑의 감동적인 화폭이 련이어 펼쳐져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뜻밖에 대재난을 당한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고 육친의 정을 기쁨 부어주시였으며 이번에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부억세간들을 보내주시였다.

북부피해지구의 인민들과 탁아소, 유치원, 학교의 보육원, 교양원, 교직원들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친어버이의 그 사랑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그들은 혹심한 재난을 당하였을 때 우리 원수님께서는 많은 식량과 식료품들을 안겨주시고 오늘은 또 이렇게 부억세간들까지 보내주시였다고 목메여 말하였다.

강력한 건설력량을 급파하시여 새 살림집들을 지어주도록 하시고도 꿈만 같은 사랑을 기쁨 베풀어주시니 친부모인들 이처럼 다심할수 있겠는가, 원수님의 사랑은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길수 없다, 그이께서 계시기에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두렵지 않다고 그들은 한결같이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피해지역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 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최후공격전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조국의 북변땅에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를 높이 울려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에 또다시 펼쳐진 숭고한 화폭은 이 세상 천만부모의 사랑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뜨거운 열과 정으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은 혁명가의 생명

오늘 우리 혁명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우리의 앞길에는 의연히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투쟁을 가로막으려는 원쑤들의 책동은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우리가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멈고 험난한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자면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은 선군시대의 우리 간부들과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있어서 생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은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며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려는 강의한 의지이다.

사회주의의 길은 전인미답의 길이며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전진하는 준엄한 길이다. 그러나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와 지향이 반영되여있고 그것을 참답게 실현해나가는 가장 정당하고 과학적인 길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사회주의의 승리는 절로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온갖 낡고 반동적인것을 쓸어버리고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가장 심각하고 첨예한 혁명투쟁이며 사회주의위업은 사회주의사상을 깊이 체득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된다. 혁명은 곧 신념이며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은 혁명가들의 생명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은 혁명가들이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끝까지 받들어나갈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기둥이다.

사회주의위업은 수령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령의 위업이며 혁명가의 제일생명은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생명이다. 신념으로 가는 혁명의 길에서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수령이 이끄는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신념을 버리면 혁명을 할수 없으며 혁명가의 생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이것이 혁명가의 진가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참모장까지 하던 림수산은 혁명년한도 오래고 리론수준도 높은자였다. 그러나 이자는 청년에 사상적단련을 게을리한탓으로 혁명적신념을 잃게 되였고 그것으로 하여 사령부의 비밀을 팔아먹고도 모자라 물죽을 먹으며 함께 고생한 어제날의 전우들까지 앞장에서 토벌하는 일제의 개로 전락되였다. 이와 반대로 혁명년한도 어리고 리론수준이 낮았어도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서 모래판우에 혁명이라는 첫 글자를 새기며 성장한 투사들은 단 한명도 변절하지 않았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혁명가에게 있어서 신념은 곧 생명이며 신념을 잃으면 반드시 혁명의 패자로 굴러떨어지게 된다는것, 혁명가의 생명은 혁명년한이나 리론수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천투쟁속에서 뼈속깊이 새긴 신념에 의하여 담보된다는것이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청소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수적, 기술적우세를 자랑하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다 승리할수 있은것은 군인들과 인민들의 마음속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을 령도하고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이 간직되여있었기때문이다.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인민들이 대용식품까지 만들어먹으면서 그처럼 엄혹한 시련을 이겨낼수 있은것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성에 대하여 확신하고있었기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고 즐기차게 전진시켜오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옹호고수하고 완성해나가자면 그 어느때보다도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고 혁명적의지가 강해야 한다.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는 곧 신념과 의지의 강자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은 혁명가의 삶을 끝없이 빛내여나가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이다.

신념의 불변성으로 하여 아름답고 그것으로 하여 영원한것이 혁명가의 삶이다. 육체는 비록 죽어도 정치적생명은 사회적집단과 함께 영생하게 하는 원천,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영원한 생을 주는 불사약이 바로 우리 혁명가들이 지닌 사회주의에 대한 절대불변의 신념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뼈속깊이 새기고 체질화한 사람은 준엄한 나날에나 평범한 나날에나 바로세워도, 거꾸로 매달아도 언제나 변함없는 한모습으로 자기 령도자에게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되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한점의 서슴없이 바쳐 싸우게 된다. 혁명가의 삶을 영원히 빛나게 하여주는것이 사회주의에 대한 역사불변의 신념이라면 그 신념의 사상정신적원천은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열화같은 충성에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력사가 전진함에 따라 인간생활에서는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지만 추호도 변치 말아야 하는것이 혁명가들이 지닌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내세워주신 리인모동지의 한생은 절대불변의 신념을 간직한 혁명가는 질해교도에서도 비관을 모르고 죽음앞에서도 두려움을 모르며 그 어떤 역경도 과감히 뚫고 영웅적위훈으로 삶을 빛내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이 전진할수록, 최후승리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굳건히 간직하는것은 더욱 중요한 요구로 제기된다. 우리 혁명의 거세찬 전진앞에 길겁한 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보려고 별의별짓을 다하고있다. 지금이야말로 항일의 전구에 높이 울려퍼지던 혁명가요를 우렁차게 부르며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뼈속깊이 새기고 혁명의 붉은기높이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처 내달려야 할 때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추진시켜나가는 위력한 힘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철석같이 지닌 혁명가들의 단결의 힘이다.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하나의 사상, 하나의 신념, 하나의 의지로 똘똘뭉쳐나가는 우리 혁명대오의 도도한 흐름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

지금 우리는 가지고있을것은 다 가지고있으며 우리에게는 두려울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에서 승리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신념이 있어 혁명가이고 신념으로 승리하는것이 사회주의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우리 시대의 참된 혁명가가 되여야 할것이다.

김 성 남

원 아 들 이 받 아 안 은 따 뜻 한 은 정

세상에 둘도 없는 궁궐같은 요람에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려가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원아들이 우리 당의 뜨거운 은정을 또다시 받아안았다.

온 나라 아이들을 한품에 안아 천만사랑을 키워주는 친어버이의 정으로 엮바지에는 조근한 솜옷과 운동복, 신발을 보내준데 이어 오늘은 원아들의 건강에 좋은 밤과 잣을 가습한가득 안겨준 그 은덕에 보육원, 교양원들과 원아들은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탐스러운 밤알들과 잘 여문 잣알들을 받아안고 기쁨에 넘친 아이들의 웃음소리, 일군들과 보육원, 교양원들의 격정이 원아들의 보금자리에 차넘치였다.

어머니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전설이 날마다 꽃펴나는 행복의 별천지에서 이 세상 만복을 누리며 부럼없이 자라나는 원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군들과 보육원, 교양원들은 대양의 따사로운 빛발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밝은 미래를 꽃피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그들은 세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원아들에 대한 교육교양과 영양관리를 잘해나감으로써 원아들을 나라의 억센 기둥감들로 튼튼히 키워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년, 조선로동당창건 71년,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90년에 즈음하여 만마, 핀란드, 오스트리아, 마자르, 슬로베니아, 베네수엘라, 우간다, 남아프리카, 탄자니아, 기네, 니제르에서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기간에 강연회가 진행되였다.

강연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만마민족민주련맹 양곤지역집행위원회 무위원장은 조선로동당창건 71년을 맞는 조선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고 하면서 강연회를 통하여 조선로동당이야말로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이라는것을 더 잘 알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핀란드룡산주의자동맹 위원장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 창전하시고 강화발전시켜오신 조선로동당은 김정은동지를 최고수위에 모심으로써 주체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존엄을 더욱 높이 떨칠수 있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베네수엘라군사종합대학 총장은 혁역제력을 중추로 하는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미국의 핵위협과 침략책동에 단호격을 안기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해나가는 조선인민의 투쟁은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에게 귀중한 본보기로 된다고 언급하였다.

우간다 마케레레종합대학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소장 위원장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여왔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속에서도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현명하게 이끌고있다고 찬양하였다.

남아프리카룡산당 음푸말랑가주위원회 캉갈라지역 의장은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지난 70여년간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끄떡없이 전진해올수 있은것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전당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하였으며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았기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김정은각하를 진두에 높이 모시여 조선로동당은 더욱 위용떨치고있다, 김정은각하이시야말로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불패성의 상징이시다고 칭송하였다.

주체사상연구소조 탄자니아전국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선로동당은 장구한 기간 조선인민을 승리와 번영의 길로 이끌어온 로숙하고 세련된 당이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있다고 격찬하였다.

기네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 소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아래 조선인민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기치높이 인민의 리상인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승리에로 령도하고있다.

조선인민이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강연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전문들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